김포 종심회宗心會 정기총회 겸신년회

신임회장에 權純德씨 선출

▲ 김포종심회의 총회에서 권영복 회장이 개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신임 권순덕 회장이 취임승낙 인사를 하고 있다

안동권씨 경기 김포종심회가 1월 5일 11시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대명포구의 ‘ 청기와회관 ’ 회식당에서 열렸다. 본디 2010년도 총회이기 때문에 객년 12월 30일로 날짜를 잡았는데 폭설과 혹한으로 연로한 회원들의 거동이 염려되어 해를 넘겨 이날로 연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날은 또 축산지역 농촌 마을에서 바깥 출입이 통제되어 나오지 못하는 회원이 있는 등으로 불참자가 생겨 가까스로 모인 회원은 20수인에 그치며 예전의 4,50명에 많이 못 미쳤다. 김포종심회는 김포종친회의 후원 기구로서 주로 이 지역 안동권씨의 노장년층 유지 인사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이날의 주의제는 임원개선으로, 3년의 1회 임기를 마치는 권영복權寧福 현임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연임을 고사함에 따라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우선 현회장을 연임시키자는 안이 강력히 동의되었다. 그러나 권영복 회장의 사의가 완고하였다. 근자 안목에 질환이 생겨 다방면으로 치료중인데 시력이 약해지고 다른 일에 전념할 여가가 없다는 것이었다. 권영익權寧翼 임시의장이 이를 조정하여 바로 그 종제從弟가 되어 잘 아는 권영복 회장의 사정을 설명하고 사의를 수리하였다. 그리고 새 회장 후보의 추천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도 개구開口를 하지 않으므로 한동안이 지난 다음 임시의장이 스스로 추천하겠다면서 대곶면의 권순덕權純德씨를 후보로 거명하고 찬반의사를 물었다. 이에 만장일치로 찬성이었으나 이번에는 새 후보 본인이 취임 승낙을 완강히 사절하였다. 37세손으로 항렬도 가장 낮고 나이도 연장자가 많으니 때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종심회에는 현재 권순덕 후보 외에 대안이 없어 보였다. 취임을 해라, 다음에 때가 되면 자청이라도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는 줄다리기가 오래 지속되었다. 그리고 결국 권순덕씨가 중구衆口에 밀려 앞으로 나가 취임 인사를 하였다.

신임 권순덕 회장은 대곶면의 신협회장도 지내고 현재도 여러 지역사회단체의 책임을 맡아 분주한 상태이며 각급 선대 문중사에 빠짐이 없는 인사였다. 다음 부회장에는 하성면의 권봉안權鳳顔씨와 인천 서구 검단의 권병천權丙天씨가 선출되거나 연임되고 감사에는 하성면의 권원택權元澤씨가 선임되었다. 총무는 현임 권오윤權五潤씨가 직을 면하고자 힘써 사양했으나 또한 중의에 강작하여 유임되었다.

필자는 이날 임기를 마치는 권영복 회장으로부터 필자와 관련된 세 가지 사안에 대한 해명을 종심회원들에게 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하나는 시조 태사공의 영정에 관한 것이고, 둘은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선생의 영정, 셋은 강화 교동 출신 애국투사 권애라權愛羅 여사의 현양사업과 관계되는 것이었다.

시조 태사공 영정과 관련해서는 “20여년 전 필자가 이를 발견한 이래 문중에서 입수 소장케 하고자 나름으로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허사였다. 비공식 시가로서 소더비 같은 국제 경매회사로 반출될 경우 60억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익명 전문가의 감식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현재 소장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 10수년이다. 필자 혼자만이 이를 비교적 정밀 촬영하고 또 실물 크기로 컬러 복사도 해 두고 있다. 필자도 이제 70이 넘어 이를 영상으로나마 후손 일반에게 확산시켜 후일에 대비해야겠다는 초조감을 갖게 됐다. 그래서 원하는 후손이나 문중에 보급하려는 발상을 한 것이다. 그러나 함부로 내돌릴 수는 없어 정중히 표구를 갖추어 모시도록 하되 그 사진 현상비와 표구비 · 배송비를 입금하면 제작해 보내고자 광고를 했다. 이것이 판매행위로 오인되었는지 대종회로부터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 서신이 왔다. 이로부터 광고를 통해서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그 보급을 중지하고 있다”는 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문충공 양촌선생의 영정에 관해서는 “ 필자가 상당기간 양촌선생기념사업회를 뒷바라지하며 이끌어온 바 더 이상 유지가 어려워 마지막 사업으로 양촌선생의 국가표준영정 제작을 추진하였다. 여러 해에 걸쳐 공개 모금을 벌인 결과 양촌선생의 본손은 물론 방손의 헌성을 받아 성취되기에 이르렀다. 궁중 인물화의 장인 화백이 오랜 고증으로 이를 회화하고 문화관광부 국가표준영정 심사위원회에서의 전후 6차, 근 1년에 걸친 심사에서 최종 통과되어 표준영정으로의 지정의 행정 절차만 남은 단계에서 이의 민원이 들어가 지정이 보류된 상태이다. 물론 지정이 안되었다 하여 영정이 아닌 것은 전혀 아니다. 국내에는 국가표준영정으로의 비지정 인물 영정이 얼마든지 있다. 다만 국가표준영정과 비지정 영정의 차이가 현격할 뿐이다. 언젠가 그 민원이 해결되면 양촌선생 영정도 국가표준으로 지정이 되겠지만 그 시기는 기약하기 어렵다. 필자의 사후가 될지도 모른다. 다만 영정은 제작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사진작가에게 의뢰하여 촬영한 축소판 영정을 헌성자들에게 보내고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축소판 영정사진을 다시 복제하여 문중과 본방손이 나누어 소장하는 것은 영정의 저작권자인 화백이 양해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후손이 소장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판매 행위를 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요지를 해설하였다. 김포종심회는 이 영정 제작에 협찬한 헌성자의 하나이다. 그래서 축소판 영정사진을 받자 그 정령스런 완성도에 탄복하여 이를 수십 본 복제 · 표구하여 이날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준비해 놓고 필자를 불러 혹시 다른 문제가 파생하지는 않겠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었다.

권애라 여사의 현양사업 관계는, 호가 죽치竹稚인 권애라(추밀공파 참의공 선繕계 34세) 여사는 3 · 1운동 시 이화학당 학생으로서 후배 유관순 등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제하 여성으로서 가장 많은 독립투쟁을 최장기간에 걸쳐 해온 인물이다. 20대 초반에 모스크바 원동약소민족대회에 여운형呂運亨 · 김시현金始顯 · 나용균羅容均 등과 함께 한국 여성 대표로 참석하여 그곳에서 레닌의 주례로 김시현과 결혼, 이후 전후로 26년에 걸친 일제하 한국인 최장기 복역 기록의 하구何求 김시현과 해로하며 독립운동을 하다 해방 후 환국해서는 국회의원이 된 부군 김시현이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저격하여 무기수로 전락하는 바람에 수난의 세월을 보내고, 4 · 19의거로 풀려난 김시현이 최고령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5 · 16으로 또 실업노인이 되어 끼니를 못잇는 빈궁에 빠진다. 이러한 죽치여사의 77년 생애를 다각적으로 재생 조명한 일대기를 필자가 종보에 연재했는데 이것이 한 권 책을 이룰 분량이다. 이를 김포종심회 중심의 문중인과 참의공휘선계 종중에서 지원하여 단행본 책자로 출판하고, 그 출판기념회를 강화나 교동 현지에서 대대적으로 여는 것을 계기로 ‘ 권애라 · 김시현기념사업회 를 발족시키고 이를 법인화하여 그 생가를 복원하고 마을을 성역화하는 등 현양사업을 전개하자는 청사진이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일종의 제안설명을 요구받고 이에 응한 것이었다.

<사진 · 글 權五焄>

정헌공正獻公종회 정기 임원회의 열어

향사일 조정하고 총무도 선임

▲ 정헌공 종회의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추밀공파 정헌공正獻公(14세世 성휘 왕후王煦, 도첨의정승 都僉議政丞 계림부원대군鷄林府院大君)의 종회가 그 총회를 대신하는 2010년도 정기 임원회의를 열었다. 2011년 1월 7일 11시 서울 종로 5가 소재 식당 ‘ 강남회관 에 30여 임원이 참석하였다. 정헌공은 세칭 ‘ 9봉군九封君 ’ 국재菊齋 문정공文正公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도첨의정승 권보權溥)의 4남으로서 고려 충선왕忠宣王의 아들로 왕실 종적宗籍에 입적되어 본명 ‘ 권재權載 에서 ‘ 왕후王煦 ’로 사성명賜姓名되었다가 그 손자 대에 조선조 들어 본성으로 복성復姓되었으며, 공의 시호 정헌에 따라 그 파계를 ‘ 정헌공파 로 호칭하는 바 현재 전국 각처에 산거하는 후손이 10만에 달하고 있다. 그 묘소는 경기 파주시, 임진강 건너의 옛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안의 저운동渚雲洞 백목곡柏木谷에 소재한다.

회의는 현재 총무를 대행하고 있는 권석원權錫遠씨의 사회로 개회가 되어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한 요배遙拜와 열선조列先祖에 대한 숙사묵념熟思默念에 이어 참석자가 서로 신년을 하례하며 상읍相揖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권준식權俊植 회장이 인사말로 신년을 하례하며 추운 날씨에 원근에서 참석해 오시느라 수고하심을 치하하고 정헌공 종사에 보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권석원 총무대행이 경과보고를 하면서 정헌공의 세사歲事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등의 토의 안건에 대한 설명도 겸하였다.

장단 진동면 민통선내의 묘역 정헌공 이하 4대 열위의 향사일을 조정하는 건은, 현재 세일사歲一事의 정일定日을 매년 추석 다음 주의 일요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석 명절일 뒤끝으로서 너무 촉박한 관계로 금년부터 추석 2주후 일요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그대로 통과가 되었다. 다음은 금년의 추향秋享 제물을 화산부원군종중에서 준비할 차례인바 이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여러해째 공석중인 총무직을 대행하고 있는 권석원씨가 이날짜로 정식 총무에 선임되었다.

<權貞澤>